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6, Vol. 11, No. 2, 187-210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 관계의 친밀성과 평가자 성이 미치는 영향*

김 진 실 김 혜 숙†

아주대학교

본 연구는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에 평가자의 성과 관계의 친밀성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들이 전통적 여성을 비전통적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이는 남성평가자의 경우에 특히 그러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또한 전통적 여성에 대해서보다 비전통적 여성에 대해 더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는 경향은 친밀한 관계의 경우에는 약화되리라는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예비 실험(N=163)을 통해 조작의 방법을 확인한 결과 원래의 친밀성 조작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본 실험(N=196)에서 친밀성 조작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검증을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친밀하거나 친밀하지 않은 여성이 전통적인 또는 비전통적인 방식으로 행동하는 스크립트를 제시하고 대상 여성에 대해 태도(감정온도), 호감도, 따뜻함과 유능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가설대로 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을 비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강하였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친밀한 관계일 경우 친밀하지 않은 경우보다 더 좋아할만 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가설들을 부분적으로 지지하였다. 연구의 결과와 함의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관계의 친밀성, 성, 전통적 여성, 비전통적 여성, 양가감정

---

* 본 논문은 김진실의 2006년 아주대학교 석사 학위 연구의 일부로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 김혜숙, 아주대학교 사회대학교 심리학전공,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5
E-mail : hsk@ajou.ac.kr

사회역할이론(Eagly, 1987)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속해 있는 문화에서 규정하는 성 역할과 일치되는 활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적 압력은 성 역할과 일관된 행동을 선호하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성 역할은 남성과 여성이 실제로 행하는 행동에 대한 합의된 기대들과 바람직한 남성과 여성의 행동에 대한 합의된 기대들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문화적 고정관념에 의해 여성의 전형적 행동에 대한 일정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어긋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형적 기대에 일치하는 여성에 대해서보다 더 부정적 태도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지도자의 경우, 지도자의 역할을 주도적으로 잘 달성해 내어 긍정적인 평가를 받더라도 이들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특성들을 보여주지 못하게 되기 쉽다. 이에 따라 이들은 특히 전통적인 성 역할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Eagly & Karau, 2002).

남성과 여성은 다양한 하위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서 발견되었다(Clifton, McGrath & Wick, 1976; Deaux, Winton, Crowley & Lewis, 1985; Edwards, 1992; Noseworthy & Lott, 1984; Six & Eckes, 1991). 여성의 하위유형에는 주부, 직장여성, 섹시한 여성, 페미니스트 등이 있고 남성의 하위유형에는 운동선수, 육체노동자(blue-collar worker), 사업가, macho man을 포함한다. 이 유형은 기대되는 사회적 역할에 따라 전통적인 집단과 비전통적인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흔히 남성 대상의 경우에는 하위집단 사이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지만 여성의 하위집단은 남성보다 그 경계가 뚜렷하게 구분된다. 예로, “주부”와 “직장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한 경계는 분명하게 평가되어 “주부”는 전통적인 여성 집단으로, “직장여성, 페미니스트”는 비전통적 여성 집단으로 구분된다. 이와 같이 남성들에 대해서보다 여성들에 대해 하위집단의 경계가 더 뚜렷한 것은 여성 대상에 대해 성역할에 기대되는 집단과 위배되는 집단으로 더 잘 구분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구분에 따른 극단적 평가를 야기할 수 있다. 사회역할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여성들은 성역할에 기대되는 집단으로 긍정적 평가를 얻는 반면, 비전통적 여성들은 성역할에 일치하지 않는 집단으로 부정적 평가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Dall'Ara & Maass(2000)의 연구에서 남성의 우월성에 대해 도전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전통적 여성보다 더 성희롱을 많이 당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해 특히 남성들의 평가가 비우호적임을 지적해 준다. 실상 Haddock과 Zanna(1994)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비전통적인 여성인 페미니스트보다 전통적인 여성인 주부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효과는 여성 평가자보다 남성 평가자에게서 더 강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참여자들에게 전제적 또는 민주적인 지도방식을 발휘하는 여성 지도자에 대한 평가를 하게 하였는데, 남성 평가자가 여성 평가자보다 전제적인 여성지도자는 더 부정적으로, 민주적인 여성지도자는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평가자들의 성의 차이가 여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즉, 여성평가자들보다 남성평가자들에게서 전통적인 여성은 더 긍정적으로, 비전통적인 여성은 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더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도록 해 준다. 이러한 성차이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기존의 성역할 체계나 관습의 주체로서 여성의 성역할에 대한 더욱 강한 고정관념과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기존의 관습 및 제도의 주체가 되어 이에서 이득을 얻으므로 이를 유지하고 존속시키기 위해, 이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듯한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해 더욱 비우호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Glick 과 Fiske(1997)는 사람들은 흔히 여성에 대해 적대적 감정과 우호적 감정을 모두 가지는 양가감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즉, 양가적 성차별주의). 이 연구자들은 더 나아가서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일수록 이러한 모순되는 양가감정이 일으키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 집단을 전통적인 여성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집단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으로 더욱 뚜렷이 구분하고자 한다고 보았다. 그 결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자는 비차별주의자에 비해 전통적인 여성 집단(가정주부)에 대해서는 더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비전통적인 여성 집단(전문직 여성, 페미니스트)에 대해서는 더 적대적으로 반응하여 집단들에 대한 평가가 양극화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덜 우호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우호적인 평가를 하도록 한다(Glick, Diebold, Bailey-Werner, & Zhu, 1997).

이와 같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개념은 사람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에는 적대감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친밀감과 의존성도 내포된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이 이론에 따르면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부성주의(paternalism), 성역할 분화(gender differentiation), 및 이성애(heterosexuality)의 공통된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적대적인 감정과 온정적 감정의 두 가지 양상을 동시에 내포하는 양가적인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특히 이성애는 남성이 여성에 느끼는 가장 두드러진 양가감정의 원천인데 여성에 대한 남성의 이성애는 여성을 심리적으로 가장 밀접하고 친숙한 관계로 여겨지도록 한다. 이렇듯 남성들은 여성에 대해 적대감을 가지면서 동시에 친밀감과 의존성을 가지게 된다고 보았다. 그 결과 남성들은 일관되게 여성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통적 여성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한편 전통적 여성들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 태도를 보이게 된다. 이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비전통적인 여성을 싫어한다고 해도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이 자신과 친밀한 관계에 있을 때는 그러한 효과가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연구에서 친밀성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친밀한 관계를 대상으로 연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그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관계의 친밀성에 대한 연구들 중 대표적으로 Kenny와 Acitelli(2001)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관계의 사람들보다 상대방에 대해 더 정확하게 판단하기도 하지만 한편 편파적으로 더 좋게 평가하기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사람들은 친밀한 타인에 대해 이상화하여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게 된다. 또 Murray, Holmes와 Griffin(1996)의 연구에서는 연인관계와 결혼관계에서 파트너가 자신을 실체보다 더 이상화시켜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때 더

큰 관계만족과 친밀도를 나타냈다. 즉 연인과 부부사이는 친밀성이 높기 때문에 실체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볼 수 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Glick과 Fiske(1996)는 남성들의 여성에 대한 태도는 일방적으로 부정적이라기보다 여성이 남성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려든다거나 남성에게 비합리적인 요구를 한다는 인식에 따른 부정적이고 적대적인 태도(적대적 성차별주의)와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에 대한 보호적 관심과 보완적인 성역할 기대, 친밀감 등으로 이루어진 긍정적 태도(온정적 성차별주의)의 양가감정을 동시에 보인다고 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들은 남성의 권위를 위협하거나 도전하는 비전통적인 여성(페미니스트 등)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은 전통적인 여성(주부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한 여성이 두 집단(전통적, 비전통적 집단)에 동시에 속하거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 대해 강한 양가적 감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인이 페미니스트일 경우나, 자신의 여동생이 동성애자일 경우에는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여성들을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로 구분하여 여성에 대해 가지는 양가감정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보다 해결하기 힘든 양가감정의 상황이다. 이러한 실제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할 수 있다: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대상을 싫어하게 되거나, 대상을 나무라고 설득시키려 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대상에 의해 영향 받아 관습적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양가감정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중적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자신과 친밀한 사람의 비관습적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반면 관계없는 사람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본 연구에서는 친밀한 사람에 의해서 자아내어 지는 양가감정의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즉, 친밀하지 않은 대상(여성)이 비전통적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지만 친밀한 대상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친밀성의 영향으로 부정적 평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본 연구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친밀성의 긍정적 효과가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도 친밀성에 의해 보다 긍정적으로 영향 받지만 그 효과는 비전통적 여성에 대해서보다는 약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것은 전통적 여성에 대해서는 친밀하지 않더라도 이미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및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가 평가자의 성에 따라 달라지는 지를 살펴보고, 또한 관계의 친밀성의 영향으로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완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중요할 수 있다. 즉, 관계의 친밀성이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완화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다면 이러한 여성들에 대한 편견이나 부정적 태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친밀성을 강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연구 목적과 가설

본 연구에서는 관계의 친밀성과 평가자의

성이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과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여성의 행동이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이냐에 따라 평가는 매우 달라질 수 있다. 즉,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는 덜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계의 친밀성 여부에 따라서도 전통적인 여성과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태도, 따뜻함, 호감도)가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 긍정적인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서 여성보다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가설 1-1.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가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 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1-2. 전통적 여성을 비전통적 여성보다 더 좋게 평가하는 경향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욱 강할 것이다.

가설 2. 사람들은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해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여성에 대해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태도, 따뜻함, 호감도)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특히 비전통적 여성에 대해 강할 것이다.

가설 2-1.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에 대한 평가가 친밀하지 않은 여성에 대한 평가보다 더 긍정적일 것이다.

가설 2-2.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비친밀한 여성보다 더욱 좋게 평가하는 경향은 특히 비전통적 여성 대상에 대해 전통적 여성에 대해서보다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가설들을 검증하기 위하여 남녀 대학생들에게 전통적인 행동 또는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스크립트를 구성하여 남녀평가자들에게 제시하였다. 이때 이 대상은 실험참여자와 친밀한 관계에 있거나(예를 들어, 여동생) 혹은 그렇지 않은 관계에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하고 그 여성을 평가하게 하였다. 친밀한 관계의 연구는 지금까지 대부분 연인, 부부, 친구에 한정되어 있었다. 친밀한 관계인 친구들 혹은 애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선택 의지로 친밀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싫어한다면 애초에 친밀한 관계로 발전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서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의지가 없는 가족으로 선정하였다. 가족의 경우 자신의 선택의지에 상관없이 친밀한 관계 속에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더라도 친밀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하나의 예비 실험과 본 실험으로 구성되었다. 예비 실험은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의 조작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실험에서 발견한 조작상의 문제점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보다 적합한 방법으로 연구 가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또한 실험의 방식도 수정하여 예비실험에서처럼 교실에서 대규모 집단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소규모 집단(10~12명)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예비 실험

예비실험의 목적은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과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의 조작과 관계의 친밀성 조작이 효과적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친밀한 관계는 “누나, 언니”로 조작하였고, 비친밀한 관계는 “이정은 씨”로 하였다.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과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원고를 작성하여 그 대상 여성에 대해 평가하게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예비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는 아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들로 남학생 77명, 여학생 86명으로 모두 163명 이었다.

실험설계

실험 설계는 2(관계의 친밀성: 친밀한 관계/친밀하지 않은 관계)×2(행동특성: 전통적 행동/비전통적 행동)×2(평가자 성: 남/여)이다. 남녀 참여자들은 각 조건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독립변인

관계의 친밀성 조작

친밀한 관계일 경우 남성참가자들은 “우리 누나”, 여성참가자들은 “우리 언니”로 하였다. 친밀하지 않은 집단은 남성참가자와 여성참가자 모두 “이정은 씨”로 하여 관계의 친밀성을 조작하였다.

행동특성의 조작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과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원고를 다르게 하여 행동특성을 조작하였다. 원고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전통적인 여성과 비전통적인 여성의 대표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게 기술되었다.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 조건

> 우리 누나/우리 언니/(혹은 이정은 씨)는 올해 29살의 미혼여성으로 착하고 참한 여자로 통한다. 는 조용한 편이지만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현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결혼하면 그만 둘 예정이다. 일도 재미있지만 결혼을 하면 직장보다는 가정생활에 철저하고 충실히 하고 싶기 때문이다._____의 소망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하면 시댁어른들을 모시고 살 것이다. ____는 여자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요리학원을 다니고 십자수, 뜨개질, 퀼트를 배우고 있다. 또한 는 미래의 남편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의 순결을 지켜왔고 결혼 후에 첫 성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담배 피우는 여자를 이해는 하지만 _는 피우지 않는다. 앞으로 ____는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이다.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 조건

> 우리 누나/우리 언니/혹은 이정은 씨)는 올해 29살의 미혼여성으로 능력 있고 당찬 여자로 통한다. _는 자기주장이 강하고 주변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스타일이다. 현재 대기업의 대리로서 부서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여성으로서는 승진이 빠른 편이지만 ____는 만족하지 않는다. 후에 이 대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_____의 인생 최대 목표이다. __는 집에서 나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살고 있다. 항상 바쁘게 일을 하여서 데이트 할 시간도 없다. 그래서 인지 _____는 결혼을 자신의 삶에 대한 방해물로 여긴다.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으며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에는 더더욱 생각이 없다. 하지만 이성과 사귀고 싶어 한다. 성관계는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는 담배도 서슴없이 피우고 술도 보통 남성들 못지않게 잘 마신다. 앞으로 ____는 하루라도 빨리 CEO가 될 수 있게 열심히 일할 것이다.

종속변인

친밀성의 조작확인을 위해 '이 글의 주인공인 누나/언니(혹은 이정은 씨)는 당신과 얼마나 친밀하다고 느끼십니까?'를 '① 전혀 친밀하지 않다'에서 '⑥ 매우 친밀하다'의 6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행동특성의 조작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글의 주인공은 얼마나 전통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얼마나 여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① 매우 비전통적/남성적이다'에서 '⑥ 매우 전통적/여성적이다'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절차

본 설문은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고자"하는 것으로 소개한 후 강의실에서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스크립트를 먼저 꼼꼼히 읽고난 후 응답을 하도록 요청하였다. 친밀한 조건에서는 대상 인물을 '우리 누나' 혹은 '우리 언니'로 상상하면서 행동스크립트를 읽어 달라고 지시하였다. 시간은 15분정도 소요되었다.

결과 및 논의

관계의 친밀성이 조작된 대로 지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조작점검을 위한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종속 측정치로 하여 2(관계의 친밀성: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 성: 남/여)의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피험자들이 지각한 친밀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다.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친밀조건의 친밀성 점수(M=3.65)와 비친밀조건의 친밀성 점수(M=3.40)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1,162)=1.30$, ns. 즉, 친밀성의 조작이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162)=4.88$, $p<.05$. 즉, 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M=3.74)을 비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M=3.29)보다 더 친밀하다고 하였다. 이는 전통적 행동이 비전통적 행동보다 더 익숙하게 느껴지므로

표 1. 평가자의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친밀성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4.12 (1.11)	4.00 (1.30)	4.05 (1.20)	3.48 (1.21)	3.48 (1.28)	3.48 (1.23)	3.76 (1.20)	3.72 (1.30)	3.74 (1.24)
비전통	3.37 (1.36)	2.75 (1.48)	3.00 (1.45)	3.67 (1.53)	3.48 (.93)	3.57 (1.25)	3.54 (1.45)	3.09 (1.29)	3.29 (1.37)
평균	3.76 (1.28)	3.32 (1.52)	3.51 (1.43)	3.57 (1.36)	3.48 (1.11)	3.52 (1.23)	3.65 (1.32)	3.40 (1.33)	3.52 (1.33)

표 2. 평가자의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전통성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5.00 (.71)	4.95 (1.32)	4.97 (1.07)	5.19 (.75)	4.96 (1.36)	5.07 (1.11)	5.11 (.73)	4.95 (1.33)	5.02 (1.08)
비전통	2.50 (.96)	2.04 (.86)	2.23 (.92)	1.86 (.73)	1.95 (.92)	1.90 (.82)	2.14 (.89)	2.00 (.88)	2.06 (.88)
평균	3.79 (1.52)	3.36 (1.82)	3.55 (1.70)	3.52 (1.84)	3.52 (1.91)	3.52 (1.86)	3.64 (1.70)	3.44 (1.86)	3.53 (1.78)

표 3. 평가자의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여성성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5.24 (.66)	5.05 (.95)	5.14 (.82)	5.19 (.68)	5.43 (.66)	5.32 (.67)	5.21 (.66)	5.26 (.82)	5.23 (.75)
비전통	3.19 (1.17)	3.29 (1.16)	3.25 (1.15)	3.19 (.75)	3.33 (1.15)	3.26 (.96)	3.19 (.94)	3.31 (1.15)	3.26 (1.05)
평균	4.24 (1.39)	4.09 (1.38)	4.16 (1.37)	4.19 (1.23)	4.43 (1.40)	4.31 (1.32)	4.21 (1.30)	4.26 (1.39)	4.24 (1.35)

더 친밀하게 지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음,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기술한 원고와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기술한 원고가 조작된 대로 지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통성 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관계의 친밀성: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 성: 남/여)에 대해 변량 분석하였다.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62)=353.18$, $p<.001$. 즉, 예상대로 전통적인 행동 조건($M=5.02$)에서 비전통적인 행동 조건($M=2.06$)에서보다 대상 여성이 더 전통적으로 행동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행동특성의 조작은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평가자 성의 주 효과와 친밀성의 주 효과는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모든 $Fs<1.0$).

행동의 전통성 조작의 확인을 위한 또 다른 문항으로 대상의 여성성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마찬가지의 3원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피험자들의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과 같다. 변량분석 결과,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162)=183.60$, $p<.001$. 표 3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전통적인 행동 조건($M=5.23$)의 여성이 비전통적인 행동조건($M=3.26$)의 여성보다 더 여성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행동조건의 여성이 더 여성적

표 4. 각 조건에 할당된 참가자 수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합	친밀	비친밀	합	친밀	비친밀	합
전통	28	22	50	22	25	47	50	47	97
비전통	27	23	50	23	26	49	50	49	99
합	55	45	100	45	51	96	100	96	196

이라는 것은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예비실험 결과 전통성의 조작은 효과적이었으나, 친밀성의 조작은 효과적이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예비실험에서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스크립트를 수정하고, 실험방법을 보완하여 실시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예비실험에서 친밀한 관계를 조작할 때 남성 평가자들은 “누나”로, 여성 평가자들은 “언니”로 하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른 언어의 문제가 혼재해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를 “내 여동생”으로 수정하여 언어의 효과를 통제하였다. 친밀하지 않은 관계 조작 조건에서는 대상을 “이정은 양”으로 하였다. 또한 실험의 방식도 수정하여 예비실험에서처럼 교실에서 대규모 집단으로 실시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소규모 집단(10～12명)으로 하여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작 확인의 문항들과 종속측정 문항들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강화된 방법을 사용하여 가설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

본 실험 연구에서는 예비실험에서 드러난 조작상의 문제를 수정, 보완하여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과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관계의 친밀성과 평가자 성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피험자

이 연구에 참여한 피험자는 아주대학교의 학생들로 남학생 100명, 여학생 96명으로 총 196명이었다. 이들은 심리학 개론을 수강하는 학생들이었다.

실험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2(관계의 친밀성: 친밀한 관계/친밀하지 않은 관계)×2(행동특성: 전통적 행동/비전통적 행동)×2(평가자 성: 남/여)이다. 남녀 참여자들은 각 조건에 무선으로 배정되었다. 각 조건에 배정된 참여자 수는 표 4에 제시하였다.

독립변인

관계의 친밀성 조작

친밀한 관계의 조건에서는 “내 여동생”으로

조작하였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조건에서는 “이정은 양”으로 하여 관계의 친밀성을 조작하였다.

행동특성의 조작

예비실험에서 사용했던 원고를 약간 수정하여 조작하였다. 글 속의 주인공을 여동생으로 하였기 때문에 연령을 낮추고 직업도 직장인에서 대학생으로 수정하였다. 또 인상평가(따뜻함과 유능성 평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착하고 참한여자/능력 있고 당찬 여자’라는 묘사를 삭제하였다.

아래의 글은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의 조건에서 사용한 원고이다.

> 내 여동생/ 이정은 양은 올해 22살의 대학생이다. __은 조용한 편이지만 성격이 밝아서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다. 현재 대학생으로 학교공부에 충실하며 졸업 후의 취직을 위해 영어공부도 열심히 한다. 대기업에 취직해서 다니다가 때가되면 결혼하는 것이 여동생의 현재 목표이다. ____은 회사를 다니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그만 둘 것이라고 한다. 일도 재미있겠지만 결혼을 하면 일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의 소망은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다.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결혼하면 시댁어른들을 모시고 살아도 상관없다고 한다. ____은 여자라면 당연히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기 위해 요리학원을 다니고 십자수, 뜨개질, 퀼트도 배우고 싶다고 한다. 또한 _____은 미래의 남편을 위해 자신의 순결을 지킬 것이라고 한다. 되도록이면 결혼 후에 첫 성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____은 담배 피우는 여자를 이해는 하지만 자기가 피우지는 않는다. 앞으로 ____은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할 것이다.

다음은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의 조건에서 사용한 원고이다.

> 내 여동생/ 이정은 양은 22살의 대학생이다. ____은 자기주장이 강하고 주변사람들을 이끄는 지도자 스타일이다. 현재____은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남학생들과의 경쟁 끝에 단과대 학생회장이 되어 활동하고 있다. 항상 공부와 학생회일로 바쁘게 보내느라 집에는 방학 때만 오고 학교 앞에서 자취하고 있다. ____은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하다가 인정을 받아서 나중에는 한 기업의 CEO가 되는 것이 인생의 최대 목표이다. _____의 또 다른 소망은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벌다가 돈이 모아지면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소망이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현재로서는 ____의 인생 계획에 결혼은 없으며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은 현재로서는 결혼을 자신의 삶에 대한 방해물로 여긴다. 하지만 이성과 사귀고 싶어 한다. 성관계는 결혼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연인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____은 담배도 피우고 술도 보통 남성들 못지않게 잘 마신다. 앞으로 _____은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종속변인

태도 평가

스크립트의 주인공에 대한 태도를 주 종속치인 감정온도로 측정하였다. 이 글의 주인공을 생각할 때의 느낌을 0℃(매우 차갑다)에서 99℃(매우 따뜻하다)의 척도를 사용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호감도

‘당신이 이글의 주인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할 만합니까?’라는 질문에 ‘① (전혀 좋아할만하지 않다)에서 ⑥ (매우 좋아할만 하다)’의 6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인상평가

원고에 나타난 여성에 대한 특성을 어떻게 지각하였는지를 12쌍의 형용사들로 이루어진 의미미분 척도(-3: 전혀 그렇지 않다, 3: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응답들에 대해 최대 우도법을 통한 직교회전으로 요인 분석한 결과, 따뜻함과 유능성의 2요인으로 나왔다. 따뜻함 요인에는 ‘좋은-나쁜’,

‘긍정적인-부정적인’, ‘유쾌한-불쾌한’, ‘부담되는-부담되지 않는’, ‘따뜻한-냉정한’, ‘친절한-불친절한’이 포함된다. 유능성 요인은 ‘똑똑한-우둔한’, ‘능동적인-수동적인’, ‘강한-약한’, ‘지적인-지적이지 않은’, ‘가치 있는-쓸모없는’, ‘부럽지 않은-부러운’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뜻함 요인의 신뢰도(Cronbach α)는 .84이고, 유능성 요인의 신뢰도는 .85이다. 각 요인에 관련된 측정치들의 평균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작확인

친밀성을 확인하는 문항을 총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이 글의 주인공인 여동생/이정은 양이 당신은 얼마나 친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해 ‘① 전혀 친밀하지 않다’에서 ‘⑥ 매우 친밀하다’의 6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글의 주인공인 여동생에 대해 당신은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① 전혀 모른다’에서 ‘⑥ 매우 잘 알고 있다’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 이글의 주인공인 여동생에게 당신은 자신을 어느 정도 개방할 수 있습니까?’를 ‘① 전혀 개방할 수 없다’에서 ‘⑥ 매우 개방할 수 있다’의 6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행동특성의 조작효과를 측정하기위해서 2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글의 주인공은 얼마나 전통적인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글의 주인공은 얼마나 여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를 ‘① 매우 비전통적/남성적이다’에서 ‘⑥ 매우 전통적/여성적이다’의 6점 척도들을 사용하여 평가하도록 하였다.

실험절차

심리학 개론 수업을 듣는 학생을 대상으로 인상형성에 대한 실험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본 실험은 12명 정도씩의 소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의 목적은 “다양한 관계와 다양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인상을 형성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주었다. 참가자들에게 제시되는 인물에 대한 글을 읽고 나서 이 인물에 대한 질문들에 응답하도록 지시하였다.

본 연구의 독립변인인 관계의 친밀성은“여동생”으로 조작하였다. 반면, 친밀하지 않은 조건에서는“이정은 양”이라고 기술하였다. 친밀한 관계의 경우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라고 지시하였고,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경우는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를 상상하면서 읽어주세요.”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과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묘사한 글로 행동특성을 조작하였다. 실험 참여자들은 스크립트를 읽고 나서 태도를 평가하는 감정온도, 호감도 및 인상평가를 묻는 질문들에 응답을 한 후 조작확인 문항에 응답을 하였다. 실험에 소요된 시간은 약 20분 정도였다.

결 과

조작확인 분석

친밀성의 조작확인을 위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평균한 측정치에 대해 2(관계의 친밀성: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 성: 남/여)로 삼원 변량분석을 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피험자들이 지각한 친밀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친밀성의 주 효과가 유

표 5. 평가자의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친밀성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4.55 (.42)	4.26 (.82)	4.42 (.64)	4.45 (.86)	3.96 (.86)	4.19 (.89)	4.51 (.65)	4.10 (.85)	4.31 (.76)
비전통	3.84 (.88)	3.55 (.97)	3.71 (.93)	4.03 (.97)	3.53 (.97)	3.76 (.99)	3.93 (.92)	3.54 (.96)	3.73 (.96)
평균	4.20 (.77)	3.90 (.96)	4.06 (.87)	4.24 (.94)	3.74 (.94)	3.97 (.96)	4.22 (.84)	3.81 (.95)	4.02 (.92)

표 6. 평가자의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전통성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4.81 (.90)	4.85 (.84)	4.83 (.87)	4.90 (1.30)	4.83 (1.01)	4.86 (1.14)	4.85 (1.09)	4.84 (.92)	4.85 (1.01)
비전통	2.40 (.89)	2.24 (.62)	2.32 (.77)	2.76 (.77)	2.46 (.78)	2.60 (.78)	2.57 (.85)	2.36 (.71)	2.46 (.79)
평균	3.63 (1.51)	3.52 (1.51)	3.58 (1.50)	3.81 (1.51)	3.62 (1.49)	3.71 (1.49)	3.71 (1.50)	3.57 (1.49)	3.64 (1.50)

의미하였다, $F(1,195)=10.31$, $p<.01$. 예상했던 대로, 평가자들은 친밀조건의 여성($M=4.22$)들을 비친밀조건의 여성($M=3.81$)보다 더 친밀하다고 평가하였다. 이것으로 친밀한 관계의 조작이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1,195)=21.46$, $p<.001$. 즉, 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M=4.31$)을 비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M=3.73$)보다 더 친밀하다고 하였다.

행동특성의 조작확인을 위해 전통성질문에 대한 응답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2(관계의 친밀성: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성: 남/여)에 대해 변량 분석하였다.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의 결과,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95)=336.96$, $p<.001$. 즉, 평가자들은 전통적인 행동 조건($M=4.85$)의 여성이 비전통적인 행동 조건($M=2.46$)의 여성보다 더 전통적으로 행동한다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스크립트의 전통성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행동의 전통성 조작의 확인을 위한 또 다른 문항으로 대상의 여성성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 마찬가지의 3원 변량분석을 수행하였다. 변량분석에 따른 조건별 피험자들의 응답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변량

표 7. 평가자의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여성성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5.11 (.74)	5.09 (.87)	5.10 (.79)	5.14 (1.25)	5.04 (.84)	5.09 (1.04)	5.12 (.98)	5.06 (.85)	5.09 (.91)
비전통	2.81 (.88)	3.09 (.85)	2.94 (.86)	3.35 (1.03)	3.38 (.90)	3.37 (.95)	3.06 (.98)	3.24 (.88)	3.15 (.93)
평균	3.98 (1.41)	4.07 (1.32)	4.02 (1.36)	4.22 (1.44)	4.20 (1.20)	4.21 (1.31)	4.09 (1.42)	4.14 (1.25)	4.11 (1.34)

분석 결과,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195)=214.83$, $p<.001$. 표 7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면, 전통적인 행동 조건($M=5.09$)의 여성이 비전통적인 행동조건($M=3.15$)의 여성보다 더 여성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즉, 참여자들은 전통적인 행동조건의 여성이 더 여성적이라는 것은 전통성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을 의미한다.

태도평가

글의 주인공에 대한 느낌 온도(즉, 감정온도)를 평가하는 문항에 응답한 값들에 대해 2(관계의 친밀성: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 성: 남/여)으로 변량 분석하였다. 각 조건별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8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F(1,195)=92.50$, $p<.001$. 즉, 평가자들은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72.09$)에 대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3.63$)에 대해서보다 더 높은 감정온도를 나타내었다. 예상대로,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보다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알 수 있다(가설1-1 지지). 또한 친밀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게 나왔다, $F(1,195)=4.67$, $p<.05$. 즉, 친밀한 관계의 여성($M=60.96$)에 대해 비친밀한 관

표 8. 평가자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감정온도 평가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76.75 (16.29)	71.23 (21.26)	74.32 (18.64)	74.91 (16.11)	65.16 (17.27)	69.72 (17.27)	75.94 (16.07)	68.00 (19.27)	72.09 (18.05)
비전통	41.11 (19.68)	44.35 (27.44)	42.60 (23.37)	51.70 (24.34)	38.46 (19.11)	44.67 (22.50)	45.98 (22.36)	41.22 (23.33)	43.63 (22.85)
합계	59.25 (25.35)	57.49 (27.87)	58.46 (26.39)	63.04 (24.53)	51.55 (22.22)	56.94 (23.64)	60.96 (24.53)	54.33 (25.22)	57.71 (25.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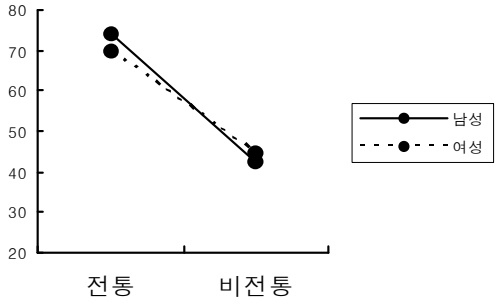

그림 1. 태도평가에서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상호작용

계의 여성(M=54.33)에 대해서보다 더 높은 감정온도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2-1을 지지한다.

또한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미성에 근접하였다, F(1,195)=3.14, p<.08. 그림 1에 나타나 있듯이, 예상대로 전통적 여성에 대해서 비전통적인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은 여성평가자들보다 남성평가자들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가설 1-2지지 경향). 각 행동특성별 평가자 성의 단순 주 효과 분석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에서 남성 평가자들(M=74.32)과 여성평가자들(M=69.72)의 감정온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F(1,195)=1.58, p>.10.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평가자들(M=44.67)과 남성평가자들(M=42.60)의 감정온도 차이는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F(1,195)= .20 p>.10.

호감도 평가

호감도를 측정하는 문항("이 글의 주인공을 생각할 때 얼마나 좋아할만합니까?")에 응답한 값을 2(친밀감: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 성: 남/녀)으로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호감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9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보면, 행동특성(전통/비전통)의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95)=43.83, p<.001.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68)에 대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3.68)에 대해서보다 더 호감이 간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태도 평가의 경우와 일관된 연구 결과이다(가설 1-1 지지). 행동특성과 평가자성의 이원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95)=15.89, p<.001.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상호작용결과를 좀더

표 9. 평가자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호감도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5.00 (.77)	4.95 (.90)	4.98 (.82)	4.27 (1.20)	4.44 (.82)	4.36 (1.01)	4.68 (1.04)	4.68 (.89)	4.68 (.96)
비전통	3.52 (.98)	3.30 (1.19)	3.42 (1.07)	4.43 (.99)	3.50 (1.30)	3.94 (1.25)	3.94 (1.08)	3.41 (1.24)	3.68 (1.19)
평균	4.27 (1.15)	4.11 (1.33)	4.20 (1.23)	4.36 (1.09)	3.96 (1.18)	4.15 (1.15)	4.31 (1.16)	4.03 (1.25)	4.17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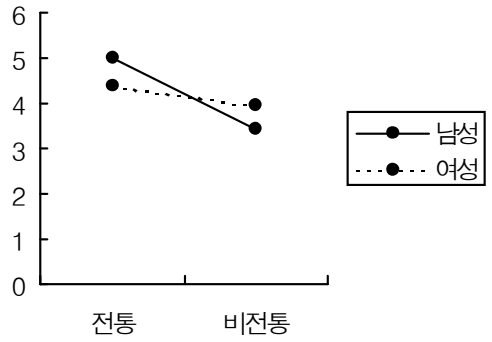

그림 2. 호감도 평가에서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상호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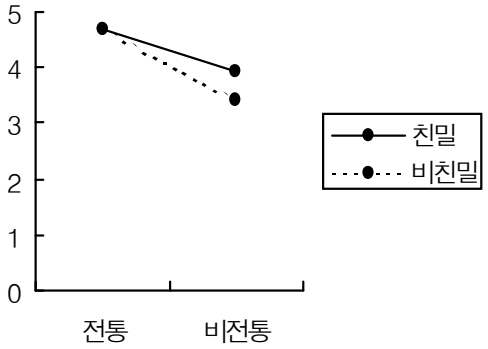

그림 3. 호감도 평가에서 행동특성과 관계의 친밀성의 상호작용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남성 평가자들은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98)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3.42)보다 더 좋아할만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65.75$, $p<.001$. 한편 여성 평가자들도 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M=4.36)을 비전통적 행동을 하는 여성(M=3.94)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이는 남성 평가자들에 있어서만큼 뚜렷하지는 않았다, $F(1,195)=3.01$, $p<.09$.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대로 전통적인 여성을 비전통적인 여성보다 더 좋아하는 경향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났고 이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이다. 각 행동특성에 있어서 평가자성의 주효과를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 평가자들과 여성평가자들의 호감도 평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195)=11.02$, $p<.001$. 즉,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 남성평가자들(M=4.98)은 여성평가자들(M=4.36)보다 더 좋아할만하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도 남성평가자들과 여성평가자들의 호감도 평가에 유의미한차이가 있었다, $F(1,195)=4.93$, $p<.05$. 즉,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 남성참가자들(M=3.42)은 여성참가자들(M=3.94)보다 덜 좋아할만 하다고 평가하였다.

친밀성과 행동특성의 상호작용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F(1,195)=4.63$, $p<.05$. 각 행동 특성의 평가에 있어서 친밀성의 단순 주효과를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친밀감의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F(1,195)=0.14$, ns. 그러나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예상했던 대로 친밀한 관계의 여성(M=3.94)을 친밀하지 않은 관계의 여성(M=3.41)보다 더 좋아할만 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6.45$, $p<.01$. 이러한 결과는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평가할 때 친밀한 관계의 여성을 비친밀한 관계의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2-2를 지지하는 연구 결과임을 시사한다.

친밀성과 행동특성의 상호작용을 친밀성의 평가에 따른 행동특성의 단순 주효과로 다르게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친밀한 관계의 여성을 평가할 때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68)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

3.94)보다 더 좋아할 만 하다고 평가하였고, $F(1,195)=12.23$, $p<.001$, 비친밀한 관계의 여성에 대해서도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68$)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3.41$)보다 더 좋아할만 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33.19$, $p<.000$.

따뜻함 평가

따뜻함 평가의 평균값들을 2(친밀감: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성: 남/녀)으로 변량 분석하였다. 각 조건별 따뜻함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에 의하면,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하였다, $F(1,195)=69.09$, $p<.000$. 즉, 참가자들은 예상대로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5.16$)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00$)보다 더 따뜻하다고 지각하였다. 이는 가설 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행동특성과 평가자성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하였다, $F(1,195)=4.57$, $p<.05$.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상호작용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4에 나타나 있듯이 남성평가자는 전통적인 여성($M=5.27$)이 비전통적인 여성($M=3.82$)보다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59.70$, $p<.000$. 또한 여성평가자들도 전통적인 여성($M=5.04$)이 비전통적인 여성($M=4.18$)보다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18.63$, $p<.000$. 남성과 여성 평가자 모두 전통적인 여성을 비전통적인 여성보다 더 따뜻하다고 평가하였지만 F값을 비교해 보면 전통적인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남성평가자들에서 여성평가자들에서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상호작용을 위의 행동특성의 단순 주효과가 아닌 평가자 성의 단순 주효과로 분석해 보면,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자성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1,195)=1.52$, ns. 반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해서는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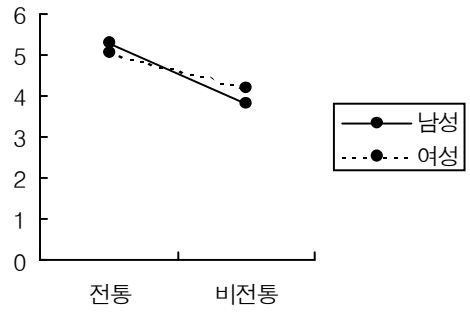

그림 4. 따뜻함 평가에서 행동특성과 평가자 성의 상호작용

표 10. 평가자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따뜻함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5.28 (.72)	5.27 (1.11)	5.27 (.91)	5.07 (.89)	5.01 (1.01)	5.04 (.94)	5.19 (.80)	5.13 (1.05)	5.16 (.93)
비전통	3.77 (.87)	3.88 (1.10)	3.82 (.97)	4.30 (.89)	4.07 (1.10)	4.18 (1.00)	4.01 (.89)	3.98 (1.09)	4.00 (.99)
평균	4.54 (1.10)	4.56 (1.30)	4.55 (1.18)	4.67 (.96)	4.53 (1.15)	4.60 (1.06)	4.60 (1.04)	4.54 (1.21)	4.57 (1.12)

성평가자들(M=3.82)이 여성평가자들(M=4.18)보다 덜 따뜻하게 평가하는 유의한 경향성을 보였다, F(1,195)=3.16, p<.08. 이는 가설 1-2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유능성 평가

유능성에 대한 평가를 2(친밀감: 친밀/비친밀)×2(행동특성: 전통/비전통)×2(평가자 성: 남/녀)로 변량 분석하였다. 각 조건별 유능성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1에 제시하였다.

변량분석 결과에 의하면, 행동특성의 주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195)=99.42, p<.001. 즉 실험참여자들은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4.23)보다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M=5.60)을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성과 행동특성의 이원상호작용이 유의미하게 나왔다, F(1,195)=99.42, p<.001. 이를 행동특성의 단순주효과로 분석하면, 남성평가자들은 전통적인 여성(M=4.59)보다 비전통적인 여성(M=5.49)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24.64, p<.000. 또한 여성평가자들도 전통적인 여성(M=3.84)보다 비전통적인 여성(M=5.71)이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 F(1,195)=80.83, p<.000. 남성과 여성 평가자 모두 비전통적인 여성이 전통적인 여성보다 더 유능하다고 평가하였지만 이 경향은 여성 평가자들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행동특성에 있어서 평가자 성의 주 효과를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하여 남성평가자들(M=4.59)이 여성평가자들(M=3.84)보다 유능성을 더 높게 평가하였다, F(1,195)=11.77, p<.001. 반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F(1,195)=2.12, p>.10.

요약하면, 본 연구 결과는 가설대로 참여자들이 감정온도(즉, 태도), 호감도 및 따뜻함의 평가에서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는데, 이는 여성평가자에 있어서보다 남성 평가자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또한 적어도 호감도 평가에서 예상대로 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친밀성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비전통적 여성에 대해서는 친밀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친밀한 경우에 더욱 높게 평가하였음을 밝혔다.

표 11. 평가자 성, 관계의 친밀성과 행동특성에 따른 유능성의 평균(표준편차)

	남 성			여 성			전 체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친밀	비친밀	평균
전통	4.51 (1.02)	4.70 (1.03)	4.59 (1.02)	3.66 (.96)	4.00 (1.34)	3.84 (1.18)	4.13 (1.07)	4.33 (1.25)	4.23 (1.16)
비전통	5.63 (.65)	5.32 (.88)	5.49 (.77)	5.74 (.83)	5.68 (.85)	5.71 (.83)	5.68 (.73)	5.51 (.87)	5.60 (.81)
평균	5.06 (1.02)	5.01 (1.00)	5.04 (1.01)	4.72 (1.38)	4.86 (1.39)	4.79 (1.38)	4.91 (1.19)	4.93 (1.22)	4.92 (1.21)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우리 대학생들이 전통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에 대해서보다 비전통적으로 행동하는 여성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갖는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평가자의 성과 대상의 친밀성이 이러한 평가 경향을 완화시키는 요인인지를 검토하였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상과의 관계의 친밀성과 대상 여성의 행동 특성의 전통성을 변화시켜 그에 따라 남녀 평가자의 대상에 대한 태도, 호감도 및 인상평가가 달라지는 지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 결과 가장 일관되고 뚜렷하게 나타난 결과는 남성과 여성 대학생들이 모두 태도, 호감도 및 따뜻함의 평가에서 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을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는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의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들이 여전히 비전통적인 여성을 전통적여성보다 편파적으로 선호하고 있음을 지적해 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많은 선행 연구들에서 보여준 바와 일치한다. 2002년에 수행된 김혜숙과 장재윤의 연구에서도 남성 고위 공무원들은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이는 여성 리더(공무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여성 리더가 여성에게 기대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어느 정도 맞게 관계 지향적으로 행동하고, 기존의 권위와 질서를 수용하여 남성 주도적 조직을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와 행동을 취하며, 여성들 간의 협동이나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지 않을 때 남성 상사에 의해 더 좋게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결과-특히 여대생 평가자들도 이러한 편파적 평가 경향을 보인다는-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비전통적 여성 행동 스크립트가 전형에서 크게 괴리되는 행동이나 부정적 일탈행위를 묘사한 것이 아니었고, 그보다는 결혼보다는 학생회장이나 CEO 등 지도자로서의 꿈을 추구하며 자유롭고 분방한 행동을 보이는 여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었고 또한 더 유능한 것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또한 실제로 평가자들에 의해 더욱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에), 일면 놀라운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한 이와 같이 전통적인 여성에 대해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해서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태도, 호감도 및 따뜻함 평가)하는 경향이 여성평가자들보다 남성평가자들에게서 더 강하게 나타나 가설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평가자의 성의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남성들이 비전통적인 여성, 즉 기존의 성역할과 맞지 않는 여성에 대해 보다 편파적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함을 알 수 있다. Eagly와 Johnson(1990)의 연구에서도 평가자가 주로 남성인 경우에 여성리더가 전형적인 남성 지위를 차지하면 여성들은 평가절하 되었다.

이와 같이 남성이 여성보다 전통적 여성을 비전통적 여성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사회역할 이론이 제안하는 대로 관습적 성역할에 대한 기대가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욱 강하게 가지기 때문일 수 있다. 어느 사회나 기득권 집단들은 약자 집단보다 그 사회의 기존의 규범이나 체제에 더욱 동일시하는 방식으로 사회화되므로 기존의 성역할 규범이나 기대도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고 따라서 이와 같은 강한 기대에 위반되는

여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다.

또 다른 이유로는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전통적인 여성과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나타내는 요인으로 성차별주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왔다. 그중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에서 설명하는 바로는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부정적 감정과 적대감의 감정으로 나타나며, 특히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표명되는 반면에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일반적으로 여성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찬양의 감정으로 나타나며, 특히 전통적인 여성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는 여성들이 남성들에 비해 덜 긍정적인 특성과 능력을 가지므로 더 낮은 지위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일부 여권운동가 등의 비전통적 여성들이 지나치게 목소리를 높이고 불만만 큰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는 이와 같이 부당하게 기존의 체제를 위협하며 도전하는 여성들에 대해 적대적이며 부정적 감정을 보이고 그럼으로써 기존의 성역할 체제를 보호하고 유지시키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성차별주의를 검토한 연구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에서 온정적 성차별주의에서보다 남녀 간의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안상수, 김혜숙 및 안미영, 2005). 즉,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강한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가진다. 이와 같이 남성들이 여성보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를 더 강하게 가지므로 기존의 체제에 도전적이고 위협적인,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해 덜 우호적으로 평가하게 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여성 집단들에 대한 적대적 및 우호적 성차별주의의 태도를 검토한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및 최인철(2005)의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보다 비전통적 여성 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와 연관되었는데, 이는 남성들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났다.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비전통적 여성에 대해 더욱 부정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성역할 기대와 예측에 위배되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다 감정적이고 동기적인 이유-기존의 관습 및 제도의 수혜자로서 이를 유지하고자 하여 이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여성을 평가절하 함-에서인지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는 알 수 없고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남녀 대학생 참여자들은 비전통적 여성을 전통적 여성보다 더욱 유능하다고 평가하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스크립트에서 비전통적 여성이 결혼이나 성에 대한 태도 등에 있어 비전통적 태도를 가지지만 한편 '단과대 학생회장이고 장래 CEO를 꿈꾼다는' 등 보다 유능한 것으로 기술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비전통적 행동을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전통적 태도를 보이는 여성들에 대해서보다 더욱 유능한 것으로 지각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본 연구에서 대상에 대한 실험 참가자들의 전반적 태도는 그녀의 유능성(r=-,10, p>.05)보다는 전통적인 행동과 태도 여부(r=.55, p<.001)에 의해 보다 영향 받았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의문은 사람들이 이 두 유형의 여성 채용지원자들 중 한 사람을 고용하고자 할 때 과연 유능성에 초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보다 순응적 성격이나 태도에 보다 초점을 두어 선택을 할 지에 대해서이다. 즉, 사람들이 유능하더라도

비전통적인 여성을 보다 전통적인 여성보다 더 싫어하더라도 유능성과 직업의식이 보다 강조되는 직업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적 감정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는 지에 대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던 관계의 친밀성의 영향에 대한 결과들을 살펴보면 먼저 태도평가에서 관계의 친밀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여 친밀한 관계의 여성이 비친밀한 관계의 여성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적어도 호감도 평가에 있어서 관계의 친밀성이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약화시켰다. 즉,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는 친밀한 관계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긍정적이었지만 예상대로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는 친밀한 관계의 영향으로 더 좋아졌다. 이와 같이 관계의 친밀성이 비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 남성들이 비전통적인 일반 여성들을 평가 할 때 자신들과 무관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이라고 간주하도록 한다면 대상에 대한 부정적 평가나 폄하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친밀한 관계의 경우 비친밀한 관계보다 비전통적인 여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이는 전통적인 여성에 대한 평가 점수보다는 낮은 점수였다. 또한 친밀성의 주효과는 감정온도에서만 나타나서 기대했던 만큼 강한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앞으로의 연구에서 관계의 친밀성 조작을 더 강화하거나 더 강한 친밀성의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여성이 비친밀한 관계일 때 보다 비전통적이지만 친밀한 관계일 때 점수가 더 높다면 관계의 친밀성의 영향이 더 확실하게 확인되므로 친밀성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친한 사람이 기존의 성역할 관습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양가감정의 상황은, 여성들을 '좋은 여자'와 '나쁜 여자'로 구분하여 여성에 대해 가지는 양가감정의 딜레마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해결하기 힘든 심한 양가감정의 상황이다. 이러한 실제 딜레마 상황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대상을 싫어하게 되거나 대상을 설득시키려 하거나 혹은 스스로가 대상에 의해 영향 받아 관습적 사고와 태도의 변화를 겪게 될 수도 있다. 혹은 이러한 양가감정의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중적 태도를 취하여 자신과 친밀한 사람의 비관습적 행동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반면 관계없는 사람의 동일한 행동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이중적 태도에 대한 일말의 증거를 얻었다. 즉, 기존의 성역할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보이는 친밀한 관계의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없는 타인이 그러한 경우보다 대상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딜레마 상황에서 이중적 태도를 보임으로써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자기 갈등에 대해서나 혹은 이러한 갈등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되는 지에 대해서나 검토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자신과 관계있는 사람이 보이는 비관습적 태도에 대해서는 그 정도를 깎아 내린다거나 그러한 행동에 대한 그럴듯한 정당해 보이는 이유를 찾는다거나 혹은 일시적 행동으로 치부한다거나 할 수 있다. 또한 보다 중요하게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가감정 상황의 사람들이 이와같이 친밀한 관계의 사람의 비규범적 행동과 사고방식에 대해 그럴듯한 정당화나 가벼운 일시적 행동으로 치부함으로

써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따라서 페미니즘이나 그에 근거한 정책들에 대해 여전히 반대의 태도를 유지하는 지를 검토하지 못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에서 이러한 양가감정을 자아내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차별주의는 여성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본 연구에서 살펴본 관계의 친밀성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성차별주의가 클수록 특히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데 친밀성의 영향으로 이러한 부적평가가 완화되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성차별주의가 높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친밀한 관계의 여성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면 부정적인 평가가 완화될 것인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또 적대적 성차별주의자들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평가할 것인지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실험실에서 원고를 사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실제 친밀한 관계에서의 상황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제한점을 가진다. 자신과 관계없는 여성들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면 평가는 나쁘게 하지만 피해버리거나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친밀한 여동생이 비전통적인 행동을 하면 친밀하니까 일반 여성들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해 줄 수는 있지만 한편 실제로 여동생이 비전통적으로 행동한다면 꾸짖음이나 저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 여성과 비전통적 여성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관계의 친밀성의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여성들에 관한 평가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틀을 시도하였다고 할 수 있다. 양가적 성차별주의에서 여성과의 친밀성 때문에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고 보았는데 그 동안의 연구에서 친밀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더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부부나 연인의 경우 선택의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전통적인 여성을 싫어한다면 선택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의 경우로 설정하였다. 가족은 선택의지가 포함되지 않아서 비전통적인 행동을 해도 관계는 친밀한 상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 중에서도 형제관계에서의 친밀성을 살펴보았는데 Furnan과 Buhrmester(1985)는 형제관계에는 온정/친밀성(애정, 친사회적 행동, 친밀성, 온정성), 갈등(갈등, 논쟁성, 적대감), 상대적 지위/권력(지배성, 양육성), 경쟁심(질투, 경쟁)의 네 가지 주요차원들이 있다고 하였다. 형제 관계에서는 경쟁심이나 갈등의 차원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연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어서도 양가감정과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경쟁심이 덜 내포되어 있는 관계-예를 들어, 부모 자식 관계- 에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 친밀성이 더 강한 딸이나 엄마로 관계를 설정하여 관계의 친밀성이 여성에 대한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을 싫어하면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인관계, 부부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의 시작에서는 보다 전통적이었지만 후에 상대 여성이 점점 더 비전통적 사고에 우호적으로 되어 행동의 변화를 보인다면 갈등이 보다 심각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지에 대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민정, 이기학 (2003). 손위 형제의 성별, 친밀감과 여대생의 성역할정체감의 관계: 손아래 여자 형제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795-809.

김혜숙, 장재윤 (2002). 여성 공무원 리더의 효율성, 성 정체성, 삶의 만족도와 조직의 성차별 문화,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8(2), 191-208.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3). 다수집단과 소수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의 내용: 유능성과 따뜻함의 차원에서의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7(3), 121-143.

김혜숙, 안상수, 안미영, 고재홍, 이선이, 최인철 (2005).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여성 하위 집단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17-133.

안미영, 김혜숙, 안상수 (2005). 적대적/온정적 성차별주의와 전제/민주방식의 여성지도자에대한 평가.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17-38.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Aron, A., Aron, E. N., & Tudor, M. (1991). Close relationships as including other in the self.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241-253.

Cliftton, A. K., McGrath, D., & Wick, B. (1976). Stereotypes of women: A single category? *Sex Roles, 2,* 135-148.

Dall'Ara, E., & Maass, A. (2000). Studying sexual harassment in the laboratory: Are egalitarian women at higher risk? *Sex Roles, 41*, 681-704.

Deaux, K., Winton, W., Crowley, M., & Lewis, L. L. (1985). Level of categorization and content of gender stereotypes. *Social Cognition, 3,* 145-167.

Eagly, A. H. (1987). *Sex differences in social behavior: A social-role interpretation*. Hillsdale, NJ: Erlbaum.

Ealgly, A. H,, & Karau, S. J. (2002). Role congruity theory of prejudice toward female leaders. *Psychological Review*, *109,* 573-598.

Eagly, A. H., & Mladinic, A. (1993). Are people prejudiced against women? Some answer from researchon attitudes, gender stereotypes, and judgment of competence. In W. Strobe & M. Hewston(Eds.), *European review social psychology(pp. 1-35)*. New York: John Willey.

Edwards, G. H. (1992). The structure and content of the male gender role stereotype: An exploration of subtypes. *Sex Roles, 27,* 533-331.

Furman, W., & Buhrmester, D. (1985b).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qualities of their sibling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56,* 448-461.

Glick, P., Diebold, J., Bailey-Werner., & Zhu. (1997). The two faces of Adam: Ambivalent sexism and polarized attitudes toward wome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 1323-1334.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 491-512.

Glick, P., Fiske, S. T., Mladinic, A., Saiz, J. L., Abrams, D., Masser, B., et al. (2000). Beyond Prejudice as Simple Antipathy: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cross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763-775.

Glick, p., & Fiske, S. T. (2001). An Ambivalent alliance: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s complementary justifications for gender inequality. *American Psychologist*, *56*, 109-118.

Haddock, G., & Zanna, M. P. (1994). Preferring "housewives" to "feminists": Categorization and the favorability of attitudes toward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8*, 25-52.

Johannesen-Schmidt, M. C., & Eagly, A. H. (2002). Another look at sex differences in preferred mate characteristics: The effects of endorsing the traditional female gender ro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 322-328.

Kenny, D., & Acitelli L. K. (2001). Accuracy and Bias in the Perception of the Partner in a Close Relationship.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439-448.

Mashek, D. J., & Aron. A., Boncimino. M. (2003). Confusion of self with close other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9*, 382-392.

Masser, B., & Abrams, D. (1999). Contemporary sexism. *Psychology of Women Quartely*, *23*, 503-517.

Murray, S., B., Holmes, J. G., & Griffin, D. W. (1996). The benefits of positive illusions: Idealiz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satisfaction in close relationships. *Jou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79-98.

Noseworthy, C. M., & Lott, A. J. (1984). The cognitive organization of gender-stereotypic categori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10,* 474-481.

Rudman, L. A., & Kilianski, S. E. (2000). Implicit and explicit attitudes toward female athority.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6*, 1315-1328.

Six, B., & Eckes, T. (1991). A closer look at the complex structure of gender stereotypes. *Sex Roles, 24,* 57-71.

1 차원고접수 : 2006. 5. 10.
심사통과접수 : 2006. 6. 15.
최종원고접수 : 2006. 6. 21.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Th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2006, Vol. 11, No. 2, 187-210

The Evaluation of the Traditional and the Nontraditional Females: The Effect of the Closeness of the Relationship and the Gender of the Evaluator

Jin-Sil Kim **Hai-Sook Kim**

Ajou University

The present experiment examined the effect of the closeness of a relationship and the gender of the evaluator on the evaluation of the traditional and the nontraditional female target. More specifically, we hypothesized that people would show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a traditional female than a nontraditional female, and this tendency would be stronger among males than females. We also hypothesized that the negative evaluation for the nontraditional female target would be attenuated by the closeness of a relationship. In Study (N=196), college students were presented with a script that described either a traditional or nontraditional female target with whom the participants imagined to be closely related or not, and then were asked to evaluate the target in terms of attitudes(measured by feeling thermometer scales), likability, warmth and ability.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people liked the nontraditional female target more when they supposedly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her than when there was no such a close relationship. The results also demonstrated that the male evaluators compared to female evaluators showe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the traditional female target than the nontraditional female target. These results partially supported the hypotheses. These result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the closeness of the relationship, gender, traditional female, nontraditional female